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새고려신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0년 8월 28일(금) ---(음력 7월 10일)--- Пятница 28 августа 2020г. № 34 (116901)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8월 21일-28일 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크라이 스웨타 (세界的 끝)>국제영화제가 진행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화관에 서도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 수산업체들 생선 및 해산물 50만 톤 어획

사할린주 수산업체들은 올해 초부터 44만9850.264톤의 해산물 자원을 획득했다.

사할린과 쿠릴지역 관리국에 접수된 수산업체들의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어획의 절반이 명태인 가운데 27만4천 톤에 달했다. 명태 대부분은 러시아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기간 태평양 청어 어획량은 2만3천919톤에 달했고, 왕게는 1만925.051톤, 새우는 5천202톤, 사할린주 업체들이 잡은 심해 어종은 정어리가 대부분으로 어획량은 9천715톤이다. 생선과 해산물 제품들 냉동 가공된 일부가 사할린 시장에 납품되고 있다.

비상대책부 사할린국부 참모부대 훈련 실시

8월 25일에 사할린 지역 러시아 비상대책부 본부장과 공동으로 비상사태 보호, 민방위 및 소방안전청과 사할린주 집행부와 비상사태 경고 및 해소 시스템 아래 사할린 지역의 돌린스크 부대와 함께 참모부대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 과정에서 사할린주 러시아 비상대책부 주요 관리의 공황사태 관리센터와 지방 자치단체의 통합 비상근무 및 작업지시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비상사태 원리적 활동위원회, 자연적, 기술공학적 측면의 비상사태 경고와 해소에 따른 문제로 실질적인 정보교환의 문제들을 처리했다.

익스트림 경주에 500여명 참가

8월 29일 (토) 정오 12시 코르사코브 구역 <푸시스티>간이 비행장에서 제5회 <사할린 경계 2020>익스트림 경주가 열린다. 이번 경주는 <군대 2020>군사기술포럼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전해졌다. 경주에는 83개 팀과 개인 118명 (군사 외, 총 533명)이 참가등록을 했다. 경주하는 동안 관객들을 위한 공연, 군사기계 전시를 비롯한 유희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군사기술 포럼이 유즈노쿠릴스크에서

군사기술 포럼 '2020군대'이 27일부터 29일까지 유즈노쿠릴스크에서 열린다.

27일(목)12시 레닌광장에서 포럼 개막식에 관공계 대표자와 공식 인사들, 명예 시민이 연단에 선다. 이날 다음과 같은 행사들이 열린다.

'육군 군사장비 및 특수 기술 시연', '2020 돌파와 '쿨리닌' 프로그램 결과 전시', '계약에 따른 군 복무에 현장 작업 선정', '야전 주방이 제공하는 병사들의 음식과 차 나눔', '콘서트' 등으로 진행된다.

'2020 군사기술' 포럼 폐막식은 29일 오전11시에 열린다.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존경하는 선생님과 학부모님 여러분!

지식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흥미로운 개학과 빛나는 추억으로 가득한 신학기가 다가옵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학기를 유익하게 보내고 알찬 결과들을 이루어낼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할린의 학생들이 오랫동안 중단된 학교생활 이후 책상에 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급 선생님과 동급생들과의 개별적 소통 속에 얻는 지식은 너무나 소중한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교육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학교들에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기술들을 도입하며, 장래 진로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혹, 제2차 팬데믹이 발생하더라도 원격 수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안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할린 국립대학 대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이중 학위'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사할린과 쿠릴의 학생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러시아의 우수 대학들에서 추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따라 졸업하는 학생들은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며 사할린의 명성 높은 직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학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을 기원합니다!

교육과정이 즐거움을 주고 모든 어려움들을 쉽게 극복하시길 바라며, 끊임없는 에너지와 힘, 건강을 기원하며, 지식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팬데믹 기간 동안 사할린주 학교 교육 특별 방식으로 진행

신학기 개학, 각 학교에서는 단계적 시스템으로 학생 그룹을 구분하는 지침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10분-15분 간격을 두고 수업을 번갈아 진행하는 방식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각 학급에는 특별 공부방이 배정되어 그룹을 위해 각기 다른 시간에 대규모 교대하게 된다. 이러한 수업과정 조직의 새로운 방침에 대한 설명이 연례8월 교육자 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올해 수업시간 수는 전과 같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할린 지역 학교들의 모든 수업은 직접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 학생들과 교사 간 직접 소통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다. "고 학술회의에 참석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하며 "그래서 우리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급에서 누군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학급의 전 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방역소독 기간은 14일로 한정한다. 이때 학교의 나머지 학급들은 평소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고 설명했다.

학술회의에는 연방 교육 및 과학 분야의 감독청 부청장인 보리스 체르니쇼브가 초청 인사로 참석했다. 그는 국가수능시험에서 사할린 학생들의 높은 성적에 주목했다. 2020년 국가수능시험 참가자 중 9명이 최고 점수인 100점을 달성했으며 이외에도 29명의 졸업생들에게 10만 루블리 장학금과 함께 지역 특별 휘장을 수여했다. 또한181명의 사할린 및 쿠릴의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우수 성적>으로 연방 메달을 시상했다.

"러시아 교육 및 과학 분야 감독청은 전국에서 국가수능시험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사할린 지역은 수능 방면에서 우수한 지역 중 한 곳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여러 과목 평균 점수에서 수십 퍼센트가 올랐다. 이는 사할린주 교육부와 각 교사 개개인의 큰 성과이다. 메달을 딴 학생들의 수도 증가했다. 사할린주의 교육체계는 러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주지사도 연방 차원에서 사회적 지원 분야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러분의 교육부 장관과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보리스 체르니쇼브 부국장이 전했다.

(3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7루블리 15코페야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전 러시아 청년애국대회 <2020 오스트로와> 준비 완료

대규모 애국 행사가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사할린 지역 여러 행사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대회에 러시아 75개 지역에서 500여 명의 방문객과 사할린 주민 500여 명이 참가한다. 이에 대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정부 회의에서 대회 조직의 문제들을 논의했다.

"우리의 과제는 전 대회 과정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적인 문제다.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19감염 확산을 용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방역 지침 준수를 검토해야 한다. 대규모 행사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쿠즈네초브 사할린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대회 일환으로 각각의 행사들에서 의료진들이 비상 근무하게 되고 행사 참가자 방문자들은 코로나19 검진 음성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오스트로와> 준비에 대해 집회 진행과 준비를 관장하는 기관의 지도자들이 보고했다.

교통부 장관은 행사 참가자들을 이송할 버스를 제공한다. 농산업 및 무역부 장관은 책임지고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자들과 계약을 맺었다. 스포츠부와 교육부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행사장과 참가자들의 숙소를 마련했다.

경찰관들과 국가보안부는 집회 진행 기간 강력한 조치 속에 안정질서를 확보하도록 준비한다.

동명의 포럼은 집회의 주요 행사가 된다. 포럼의 프로그램은 6개 방면 - <미래의 섬>, <승리의 섬>, <추억의 섬>, <변혁의 섬>, <언론의 섬> -에서 이

뤄진다.

전 러시아 애국 집회 개막은 8월31일 '스톨리차' 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다. 행사 참가자들과 방문객들을 위해 주 정부청사 앞마당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행사가 진행되는 며칠간 참가자들은 스미르니호브 지역을 포함해 자신의 목적에 따라 활동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탐색자 캠프가 설치되고 1945년 8월 11일부터12일에 발생했던 <한다스 경찰초소의 습격>에 대한 처음 전문적으로 준비된 역사적 재구성 이 이뤄진다.

코르사코브 구역 '푸쉬스트' 간이 비행장에서 학생들은 환경운동, 도전게임, 영웅들의 경주 등에도 참가한다.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고르니보즈두흐' 종합스포츠타지, 오호츠크해안, 썰매견과 순록이 뛰어다니는 사육장을 방문한다.

이외에도 청년들을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명소 관광이 이뤄진다.

9월3일에는 청년들이 제2차세계대전 종전일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크리스탈' 스포츠궁에서 전 러시아 애국대회 폐막식을 거행한다.

9월 3일, 젊은이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할 것이다. 같은 날 스포츠센터 "크리스탈"에서는 전 러시아 대회 폐막식이 열린다.

대회 주최로는 연방 청년사업청, 사할린주 정부, '승리의 자원봉사자' 전 러시아 사회활동이 나섰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ostrova2020.ru 이다.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투자자 덕에 남 쿠릴에서 관광개발 계획

쿠나쉬르와 쉬코탄섬이 있는 '남쿠릴' 관광단지개발의 일환으로 현재 이 부지가 선정되어 잠재적 투자자들을 위한 필요한 제반시설 구축과 개발 방면이 결정된다고 사할린주 정부 회의에서 알레리 두브롭스키 사할린 관광청 청장이 언급했다.

쿠나쉬르와 쉬코탄의 관광적 잠재력은 다면적이다. 현재 두 섬에는 19개의 관광 명소가 있고 7개의 천연자연보호지역, 4개의 화산, 많은 온천, 산책로가 구비되어 있어 이는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독특한 관광상품 조성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들 섬의 관광적 수요는 대단히 크다. 지난해는 관광객 6천여 명이 다녀갔다. 앞으로 관광 잠재력의 증가로 관광객 3만여 명 유치를 전망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도 제반시설 구축은 아직 미비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섬들에서 장기적, 단기적 전망 속에 관광개발을 하게 하는 일련의 정책과 방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알레리 두브롭스키 청장이 말했다.

섬들에 투자자들의 참여로 관광 및 기술적 제반시설을 구축해나갈 전망이다.

사할린주의 2개 기획은 특별자연보호구역에서 친환경개발에 따른 연방 전략주도형 경영 30위 안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남쿠릴'과 '라구나 부세(부세호수)'는 코르사코브지역의 관광 클러스터 조성 기획 속에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전일 기념

9월 3일 사할린 전 지역에서 종전 기념일 행사를 펼치는 가운데 대규모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된다.

"러시아 현대 역사상 우리는 9월3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을 기념한다. 이는 러시아 군사적 영광의 날의 날짜 변경일을 포함해 연방법 채택 덕에 가능하게 되었다. 사할린과 쿠릴의 주민들에게 이날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고 사할린주 정부의 사회소통부 부장인 예고르 움노브가 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승리광장에서는 오전 10시에 군 열병식이 시작되고 10시45분에는 승리 기념비에 헌화식이 진행되며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 앞마당에서는 러시아 현대 무기들이 전시된다. 오후 4시에 시 예술단의 참가로 공연이 열리고 마지막 행사로 저녁 8시 30분에는 승리광장에서 알렉산드로브 노래와 춤 앙상블이 대규모 콘서트를 펼친다.

이 모 저 모

이고리 안추크 작가, 사할린 및 쿠릴에 대한 세로 1미터, 가로 30미터의 알파벳 입문서 출간

사할린의 작가이자 주두마 의원이며 변호사인 이고리 안추크가 세로 1미터, 가로 약 30미터의 알파벳 입문서를 출간했다. 크기로 바서는 전에 출간된 '사할린과 쿠릴에 대한 시와 그림의 입문서'('올해의 성공' 인터넷 기획인 '올해의 책' 부문에서 우승)의 누이적이다. 대형 책 출간의 아이디어에 대해 이고리 안추크는 처음에 좀 색다른 책을 출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후 지역적 색조의 큰 알파벳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책에서 각 알파벳은 사할린과 연관된 단어들 선정하여 더 잘 기억하도록 시가 삽입되었다. 예를 들면 알파벳 중 '엘(Л)'은 입문서에서 '로푸흐(Лопух)', '랴구슈카(лягушка)', '류토가(Лютюга)' 등, '엔(Н)알파벳은 '네프티(нефть)', '네벨스코이(Невельской)', '넵히(нивхи)'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표준 크기의 알파벳 입문서 2천 부를 발행했다. 이고리 안추크는 출판물 일부를 사할린과 쿠릴의 학교들에 기증했다. 저자에 따르면 이것은 학습 교과서가 아니라 지식의 확장을 위한 단순히 아름다운 책으로서 어린이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흥미롭게 책장을 넘길 거라 강조했다.

현재 일반 알파벳 입문서들은 일방적으로 크다.

"대형 알파벳 입문서를 제작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2018년부터 나와 협력하고 있는 '폴리그래프 서비스 플러스' 블라디보스토크 인쇄소와 함께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다가 마침내 찾았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극동지역에서 누구도 이런 책을 출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나는 인터넷 상에서 러시아에서 출판된 대형 알파벳 입문서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이고리 안추크는 말했다.

사할린에는 대형 알파벳 입문서 첫 4권이 들어온 가운데 놀라운 이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관들에 저자의 출판물을 기증할 예정이다.

Писатель Игорь Янчук выпустил метровую азбуку о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ахалинский писатель,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и адвокат Игорь Янчук выпустил азбуку высотой один метр и шириной в развороте почти метр тридцать.

Судя по размеру, это "старшая сестра" ранее изданной книги – "Азбука в стихах и рисунках о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которая победила в номинации "Книга года" интернет-проекта "Успех года".

Идея издать книжку огромного размера, рассказывает Игорь Янчук, сначала посетила его при мыслях о другой книге, но потом он решил сделать такую большую азбуку с местным колоритом, где к каждой букве подобрано слово, имеющее отношение 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ля лучшего запоминания приведено стихотворение. К примеру, с буквы "л" в азбуке начинаются слова "лопух", "лягушка", "Лютюга", с "н" – "нефть", "Невельской", "нивх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о выпущено около 2 тысяч экземпляров азбуки стандартного размера. Издания Игорь Янчук подарил некоторым сахалинским и курильским школам. Автор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это не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а просто красочная книга для расширения кругозора, полистать которую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и детям, и взрослым.

Теперь у обычной азбуки есть аналог-гигант.

– Когда возникла идея сделать книгу такого большого размера, мы с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й типографией "Полиграф-Сервис-Плюс", с которой я сотрудничаю с 2018 года, начали искать техн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И нашли. Насколько мне известно, таких книг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икто не выпускал. Более того, я "погуглил" и не нашел нигде информации о таких больших азбуках, которые выпускались бы в России, – говорит Игорь Янчук.

Пока на Сахалин пришли первые четыре экземпляра большой азбуки. Их автор подарит организациям, которые пока не называет, чтобы не испортить сюрприз.

'소셜댄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에서 선보여

8월 23일에 문화·휴식 시공원에서 '우리와 우리 도시' 사회적 주도 연례 지방 경영의 일환으로 장려금을 획득한 '소셜댄스' 기획 공연이 열렸다.

기획자인 크세니아 카르페뉴크에 따르면 두 달간 전 연령대의 시민들이 다양한 댄스 방면-살사, 바차타, 메렝게, 차차차, 로큰롤, 부기우기, 힙합, 왈츠, 그룹 댄스 등-의 무료수업에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소셜댄스' 아이디어는 지난해 처음 생겼다. 파티에서 추는 살사, 바차타, 주트를 우리는 공원에서 시험적으로 선보였다.

지금은 청년들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춤의 장르에서 춤추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기로 했다. 시내 많은 댄스 스튜디오들이 우리의 초청에 호응했다. 많은 사람들

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해방되는 듯하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흥을 뜨겁게 달구는 로큰롤,힙합, 라틴아 메리카풍의 댄스, 왈츠 등을 리듬에 따라 춤출 때 내면의 구속과 불신이 사라지는 해방감이다."라고 크세니아 카르페뉴크가 전했다. 스튜디오의 안무가들은 공원의 무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8월23일 18시에는 시범 공연이 열렸다.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에 드는 춤의 장르를 선택하고 리듬과 신체동작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방식을 영위하도록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이 기획에 합류할 수 있었다.

'소셜댄스'기획 실제 공개수업 시간표는 공원 홈페이지 (<http://sakhalin-park.ru>)에 공지돼 있다.

В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езентовали проект "Социальные танцы"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Юрия Гагарина 23 августа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проекта "Социальные танцы", выигравшего грантовую поддержку в рамках ежегодн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социа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Мы и наш город".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автор проекта Ксения Карпенюк, уже два месяца горожане всех возрастов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сещают бесплатные занятия по различным танцеваль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альса, бачата, меренге, ча-ча-ча, рок-н-ролл, буги-вуги, хип-хоп, вальс, хороводные танцы и т. д.

– Идея "Социальных танцев" родилась еще год назад. Мы пилотно его запускали в парке, танцую вечерами сальсу, бачату и зук. Но сейчас решили привлечь не только молодежь, но и всех желающих танцевать в любом возрасте и в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На наше приглашение откликнулись многие танцевальные студии города. Приходит много людей. Мы видим, как они раскрепощаются – уходят стеснение и неуверенность, когда они вместе с нами двигаются в ритме зажигательного рок-н-ролла, хип-хопа, жарких латиноамериканских танцев, вальса, – поделилась Ксения Карпенюк.

Хореографы студий проводят занятия на танцплощадке в парке. 23 августа в 18.00 здесь прошли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выбрать понравившееся танцева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и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роекту, который поможет не только развить ритмику и пластику тела, но открыть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ведения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Актуальное расписание открытых занятий проекта "Социальные танцы" размещено на сайте парка.

(8면에 계속)

외교관 오렐 히스토리-공로명 편] 제3차 제주 한·소 정상회담 비하인드 스토리

[일요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에서 '외교'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현대사를 조명하기 위해 오렐히스토리사업 '한국 외교와 외교관' 도서 출판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총 17권의 책이 발간됐다. 일요서울은 그중 공로명 전 외교부장관의 이야기가 담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지면으로 옮겼다.

"한·소 수교 이루어지고 한국 기업 도움 받아"

"제3차는 한·소 협력을 다짐하는 회담"

- 제3차 정상회담은 1991년 4월에 개최됐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한·소 간에 3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아주 빈번한 것이다. 제주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소련 경제협력단이 연초에 방한을 했다. 당시 양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교와 경제협력을 교환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 물론 시차는 좀 있지만, 우리로서는 정치외교적으로 수교를 하는 게 목적이요, 소련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것보다는 한국과의 실제적인 관계 증진이 바람직했다. 그래서 1990년 12월 모스크바 정상회담 이후에 소련에서 경제기획담당 유리 마슬류코프 부수상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왔다. 그때 로가초프 차관이 정치 분야를 대표해서 같이 왔다. 우리 측에서는 주로 경제부처에서 김종인 경제수석이 경제협력 관련 한·소 교섭을 진행했다. 우리 외부부에서도 경제담당 차관보가 참석했는데,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현금차관 10억 달러, 전대(轉貸)차관 15억 달러, 상품차관 5억 달러로 총 30억 달러의 차관이 합의됐다. 그 후에 제주도 정상회담으로 넘어갔다.

- 수교 교섭 과정에서 우리가 경제협력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인상을 받는다. 소련이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경제관계를 확대하면 다른 선진국들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말하자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도 고려됐나

▲ 꼭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소련은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항상 경제 교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같다. 1988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선언에서도 한국을 지칭하고 경제교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래서 역시 소련은 한국의 경제 발전, 경제협력 가능성에 매력을 느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동시에 한국과 소련의 경제협력관계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우리 기업들이 소련과의 에너지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현대 같은 경우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에 파트너로 들어가려고 노력했다. 그때 일본 기업도 같이 경합하는 입장에 있었다. 소련이 일본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전문가들이 좀 더 들여다 봐야 알겠다.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고 나서 한국 기업들이 소련에 들어가 여러 가지 협력과 투자 가능성을 찾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도움을 받은 사례가 꽤 많았다. 어느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소련의 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지는 상황에서 각 연구소들에서 도움을 받았다. 가령 한 예로는 의약품 관계, 항생물체의 항균 등 분야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 냉전기 소련의 발전된 군사기술을 말하나

▲ 북한의 핵 개발에 소련의 기술자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도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소련이 상당히 규제를 하는데도 경제가 워낙 어려웠다. 그렇게 우리 기업들도 소련의 기

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활용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언젠가 그 관계를 조사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련과의 경제협력에서 일반적으로 주지만 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 손의 장부를 계산해 보면 진실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소련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법한데 어땠나.

▲ 핵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북한이 핵 개발을 이용했을 것으로, 즉 북한의 핵 개발에 소련의 과학자들이 기여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만 가지고 있었다.

- 북한이 NPT체제를 유지하고 핵 개발을 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우리가 소련에게 요구한 적은 없나.

▲ 일반론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사례로 생각나는 게 없다.

- 냉전 시대에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을 일관되게 압박했고, 그 결과 소련이 체제경쟁에서 어려워졌다는 일반 해석이 있다. 한·소 수교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미·소 냉전 대결이라는 큰 구도에서 한국이 수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해석을 어떻게 보나

▲ 결과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압박으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소련이 그 출구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한국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을 수 있다.

- 알겠다. 그럼 한·소 간 이루어진 세 차례의 회담을 역할을 분담해서 보자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나

▲ 제1차는 시작이 반이라는 노태우 대통령 말처럼 길을 여는 역할을 했고, 제2차는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 양국의 일반원칙 선언이 비교적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고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경제협력 등을 구체화하는 길을 텅다. 제3차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플레이어로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소 간의 협력을 다짐하는 차원 높은 회담이었다. 제3차는 아주 시간이 짧았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상당히 길어져서 예정 시간보다 한 너댓 시간 늦게 왔다. 그래서 제주도에서의 저녁 만찬이 자정에 시작됐다. 그럼에도 한·소 수교를 이룩한 양 정상들의 열기가 상당히 느껴지는 회담이었다.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는, 고르바초프를 영접하기 위해서 저희 내외가 소련에서 들어와서 한·소 정상회담에 참여했는데, 그랜 라이사 고르바초프 여사가 살아 있을 때라 두 분이 같이 왔다. 부인 프로그램은 따로 있으니 제주도 관광을 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안내하고 가는데, 갑자기 라이사 여사가 셋길로 들어가자고 했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구멍가게가 있었다고 했다. 제주도 시골길 구멍가게의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제 아내의 가슴이 철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뜻밖에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고 했다. 거기서 라이사 여사가 자기 손녀한테 사준다고 신발과 몇 가지 물건을 샀다고 했다. 라이사 여사가 제주도의 번듯한 시가지와 보고는, 뒷골목은 어떤 궁급했나 보다. 그 이야기를 하는 제 아내에게 제가 "당시 제주도민의 개인당 소득이 2만 달러쯤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놀랄 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난다. 그때 우리 국민 개인당 소득이 7,500달러 할 때다. (출처: 일요서울)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수학 포기자



혼자 있으면 수학교육방송을 볼 때가 있다. 우리말도 알고 숫자도 알겠는데 그 둘이 조합되는 순간 외계어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의미가 생겨난다. 저걸 알아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 미지의 영역을 술술 설명하는 강사를 보면 사람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감동마저 생긴다.

내가 수학체질이 아니란 걸 깨달은 건 중학교 일학년 때였다. 학기 초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어느 순간 맥이 끊어지면서 내가 이걸 왜 고민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마냥 놀 수는 없어서 나름대로 수학시간을 세계고전 읽기시간으로 정했고 대학 입학 때까지 그 약속을 꾸준히 지켰다. 수학을 읽은 건지, 고전을 읽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

대학에서는 수학 관련 과목이 아예 없었고 회사에서는 엑셀 프로그램이 필요한 계산을 해주니 수학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니 과거의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아직은 아이들에게 수학 포기자인 아빠의 흑역사를 고백하지 못했다. 그렇잖아도 아이들이 수학 숙제를 들고 오면 슬그머니 엄마에게 보내고, 아이들 수학점수가 낮아도 내 탓이다 싶어 아내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런데 아이들 수학은 언제 이렇게 어려워진 걸까?

"아빠는 네 나이 때 수학을 안 배우고 산수를 배웠어. 하하하!" 은근 슬쩍 넘어가려 해도 아이들의 눈초리는 점점 의혹에 찬다.

스스로를 위해 뭘 배울까 하다가 후보 목록에 수학도 넣기로 했다. 수학이 굳이 계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서다. 수학적 사고로 글을 쓸 수 있다면 어떤 글이 나올까 궁급하다. 이런 생각을 삼십년 전에 했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큰 아이를 처음으로 수학 학원에 보냈다. 첫 번째 수학 학원에서는 이렇게 선행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는 받을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앞서기 위해 개별적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면 학교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웃고 말았다. 아이를 수학으로 괴롭히고 싶지는 않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되 일찍 포기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여자하면 응원삼아 나도 같이 수학학원을 다녀볼까 고민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쓰면 동화가 되겠다 싶은 속셈도 없지는 않다.

광주에서 김남중

팬데믹 기간 동안 사할린주 학교 교육 특별 방식으로 진행

(1면의 계속)

9월1일 약 6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며 이들 중 6천 명 이상은 초등학교 신입생들이다.

올해 사할린과 쿠릴 학교들에 166명의 교사들이 교직에 채용되었고 이 중 82명은 청년 전문가들이다. <전 국가적 교사(젼스키 우치젤)> 대통령 프로그램 시행의 일환으로 농촌의 교육기관들이 39명의 새로운 교사들을 채용했다.

"9월1일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해결책에 따라 학교에서 지역 근로임금을 유지하면서 학급지도에 대한 장려금을 시행하고 있다. 사할린 지역에서 북부지역 수당을 고려해 장려금의 규모는 전국 평균보다 9천5백 루블리-1만4천 루블리보다 훨씬 높아진다."고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주 교육부 장관이 설명했다.

올 신학기에는 3만 5천 명 이상의 사할린과 쿠릴 학생들이 즉석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다자녀 가정, 저소득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북부 소수민족 원주민 가정의 자녀들이 배급을 받게 된다.

학교 수업을 받을 때 모든 즉석 무상급식은 사할린의 전 학생의 절반 이상에게 제공된다.

이런 목적으로 사할린주와 연방 예산에서 6억5백만 루블리 이상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0% 증가했다. 올해는 학교 주방 수리와 급식 시설을 위한 기술 장비 설치 및 설비에 1억2천만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학생들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학교의 책상에 앉게 되는 설렘이 있을 것이다. 팬데믹의 두려움도 있지만 방역과 안전이라는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마주하며 이뤄질 배움에 대한 기대감이 두려움을 떨칠거라 본다. 인도의 철학자 라즈니쉬는 '아는 자가 아닌 배우는 자가 되어라. 삶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발전한다. 삶은 신선해야 한다. 결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까지나 배우는 자가 되어라.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항상 열어두면서.' 라고 말했다.

2020년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취소

올해 부산광역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19차 세계한상대회(2020.10.28~10.30)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됐다.

세계한상대회는 국내 경제인과 재외동포 경제인, 재외동포 경제인간의 비즈니스 지원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되며, 작년 18차 대회기준, 해외 790명, 국내 3,692명이 참가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세계한상대회 제37차 운영위원회(8.10)가 코로나19의 지속 및 재확산으로 인한 참가자의 안전 문제, 출입국 시 격리 조치 유지 등을 고려하

여 대회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는 재외동포 경제단체장과 국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세계한상대회관련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

한우성 이사장은 올해 세계한상대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리딩CEO포럼,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영비즈니스리더포럼 등의 자체 프로그램과 상시 비즈니스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Гуманитарная помощь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захстану



COVID-19 оказался тяжёлым испытанием для всей планеты. Нет ни одной страны, которая бы не почувствовала на себе влияние пандемии.

21 августа 2020 года в Посо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в Сеуле, прошла передача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собранной силами JEJU NONYEONG ROTARY Club.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луба,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господином Хан Со, прилетели специально с Чечжудо, чтобы сказать слова поддержки казахстанцам.

Предыдущий президент Нохён Ротари господин Ян Мун Бон сказал, что данная помощь является искренней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 принявшему на своей земле корейцев, в далёком 37 году.

Советник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Олжас Раев сказал: "Очень приятно, что в далёкой Корее знают историю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ы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и ценим помощь, которую оказывает Корея и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в ситуации с пандемией".

(Евгения Цхай)

В центре вспышки коронавируса в Корее вновь оказалась церковь-секта

Южная Корея отчаянно борется с ситуацией, которая очень сильно напоминает то, что произошло полгода назад: в стране идет вспышка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центре которой находится одиозная церковь-секта. Власти всеми силами пытаются огранич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нфекции, тогда как прихожане и руководство церкви подчас дики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уклоняются от тестов, препятствуя борьбе с COVID-19. Тем временем количество заболевших продолжает заметно увеличиваться, что вынуждает вводить экстренные меры. Правда на этот раз все гораздо опаснее, чем было в феврале-марте - эпицентр вспышки находится в густонаселенном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а потому под угрозой вся стран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1 августа заявили об очередном не наблюдавшемся почти полгода антирекорде по количеству зараженных за сутк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олночь 21 августа в стране зафиксировано 324 новых зараженных COVID-19.

Статистика предыдущих дней не оставляет сомнений в том, что в Корею пошла полноценная повторная волна коронавируса. Возможно, что по меркам некоторых стран цифры и не такие значительные, но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это повтор того, с чем они столкнулись в конце февраля-начале марта этого года. За последние девять дней численность новых больных за сутки подскочила от 20-40 до более 300 человек.

Новый очаг теперь находится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 Сеуле, расположенном рядом мегаполисе Инчхон и окружающей столицу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На эти регионы приходится более 80 процентов новых заболевших за последние дни.

Есть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тревожные факторы. Столица и ее пригороды потенциально куда более взрывоопасны в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м план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эгу, который был эпицентром COVID-19 полгода назад. Если в Тэгу проживает два с половиной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и его все же можно изолировать, то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 более 25 миллионов или половина населения всей страны. Если полноценная эпидемия вспыхнет в Сеуле,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безусловным главным центром Кореи в плане экономики, политики и финансов, то это приведет к параличу всей страны.

Сложно отказаться от проведения параллелей, но и теперь в центре всего этого, как это было полгода назад, находится одиозная церковь, поведение руководства и прихожан которой существенно ухудшает ситуацию. Если раньше это была секта "Синчхонджи", то теперь речь идет о церкви "Саран Чеиль", которой руководит пастор Чон Гван Хун, придерживающийся ультраконсервативных взглядов и постоянно критиковавший политику и курс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раны.

Не стоит обобщать и винить все религиоз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В Корею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церквей, разные религии и руководители подавляющего большинства из них с пониманием отнеслись к разного рода ограничениям, но, как и было с "Синчхонджи", достаточно одного фанатично настроенного пастора и безусловно верящих ему прихожан, чтобы создать проблемы для всей страны.

Когда начали выявляться заболевшие в церкви "Саран Чеиль", то руководство церкви и лично пастор Чон все равно решили провести в центре Сеула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акции протеста с критикой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Несмотря на прямой запрет властей Сеула церковь все равно пошла на проведение демонстраций, призвав примкнуть к ним оппозиционно настроенных людей. В итоге со всей страны прибыли 79 автобусов, не считая сеульских прихожан церкви.

Сам пастор Чон Гван Хун игнорировал предписание оставаться на карантине. То же самое сделало и его окружение. Потом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в своих блогах и видеоканалах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ывали, как они игнорировали все запреты, посещая раз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места - торго-

вые центры, бани, рестораны и прочее. Данные активисты быстро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псевдо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коронавирусу, приводя подчас совершенно нелепые факты, выдавая их за научное обоснование.

В итоге произошло то, что должно было произойти. В самой церкви и тех, кто контактировал с ними выявлено за последние дни уже 739 больных. Пастор Чон Гван Хун и его сподвижники тоже заболели COVID-19. Десятки больных среди тех, кто участвовал в демонстрациях протеста в центре Сеула 15 августа.

Но прихожане стали активно сопротивляться работе медиков и проч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мессенджерах прихожан есть подробные инструкции, как надо избегать и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прохождения тестов на COVID-19, как вывлять слежку за собой, как избегать контроля со стороны властей, которые пытаются локализовать вспышку, проверяя всех контактировавших с теми, кто из групп риска.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оисходили случаи рукоприкладства со стороны прихожан церкви в отношении медиков. Одна супружеская пара из числа прихожан "Чеиль Кёхве", когда врачи пришли к ним на работу, требуя сдать тесты, стала плеваться, а затем намеренно обняла медсестру, сказав: "Раз мы должны проверяться, то и ты теперь сдай тест!" У этой пары был в итоге выявлен COVID-19, первый тест медсестры оказался, к счастью, отрицательным.

Стали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самые дикие и нелепые слухи, но в которые прихожане охотно верят.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тесты сдавать не надо, так как якобы у всех врачей установка говорить, что есть заражение и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ть прихожан "Саран Чеиль". Пастор Чон Гван Хун, который ранее рассказывал истории пр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COVID-19 через вышки систем связи 5G", теперь стал намекать на какой-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лед и каждый день, несмотря на госпитализацию, выступает со скандальными заявлениями.

Чон, в частности, стал утверждать, что среди прихожан доля зараженных не выше среднего. Власти парировали это статистикой: на 3415 проверенных - 739 заражений или 21,6 процента заражений, тогда как сре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по стране при проверке - 2,27 процента.

Но фанатично верующие и преданны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воему пастору люди все равно слушают и слышат лишь то, что хотят слышать. Проблема в том, что своими действиями и нежеланием проходить обследование они ставят под угрозу жизни окружающих и провоцируют эпидемию.

Власти в итоге заявили, что намерены принять самые жесткие меры. 21 августа с обращением выступ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который дал указание мобилизовать все силы и средства на ликвидацию вспышки, приказав самым строгим образом обходиться с теми, кто саботирует усилия и уклоняется от необходимых процедур.

Страна же замерла в ожидании того, что будет дальше. Ближайшая неделя покажет, куда качнется маятник - в сторону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й эпидемии или все же удастся купировать эту вспышку. Нет сомнений, что Корея и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ранее уже показали всему миру пример того, как надо бороться с COVID-19, в итоге справятся и с этой бедой, но вопрос в цене и масштабе усилий и жертв.

В Сеуле и ряде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уже введены повышенные меры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Запрещено собираться на акции, если в них будет участвовать 10 и более человек. И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теперь ограничены по количеству участников в 50 человек.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крупнейшие пляжи страны, несмотря на жару, закрылись досрочно, чтобы не создавать скопление людей.

Корейцы негодуют и сокрушаются: ещё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казалось, что вирус вот-вот будет побежден и можно будет жить уже совершенно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ью, но некоторая небрежность, а также "упертость" отдельно взятой религиозной общины, свели многие усилия на нет и снова приходится жить в режиме полуизоляци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Внимание!!!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на 2020-2021 учебный год.

Начало записи: с 21 августа по 3 сентября 2020 г.

Начало занятий: с 7 сентября 2020 год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возможен переход на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Также всю интересующую Вас информацию вы можете найти на сайте нашего «Центра»: <http://www.sakhalinedu.com>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Ли Су Хён из АКМУ исполнит песню к фильму «Мулан»

Участница дуэта АКМУ (악동뮤지션) Ли Су Хён (이수현) исполнит кавер-версию песни Reflection из фильма «Мулан», показ которого в РК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10 сентября. Об этом 19 августа сообщили в The Walt Disney Company Korea. Музыкальная композиция Reflection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аундтрек из мультипликационного фильма «Мулан», вышедшего в 1998 году. Она раскрывает эмоции и внутреннее состояние героини Мулан, пытающейся обрести истинное «я»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установившихся общественных рамок.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кавер-версию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исполнит певица Кристина Агилера.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87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Р посетит РК после стабилизации ситуации с COVID-19

Визит председателя КНР Си Цзиньпина в РК состоится сразу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итуация с COVID-19 стабилизируе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достигнута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22 августа в Пусане встречи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Со Хуна и главы канцелярии комиссии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Китая Ян Цзеч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согласовать детали визита в ходе рабоч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Китай подтвердил, что РК станет первой страной, которую посетит Си Цзиньпин после открытия границ.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отметили также ва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в течение ближайшего года трёхсторонне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китайско-японского саммита. Со Ху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одолжит усилия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рогресса в мирном проце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Ян Цзечи отметил, что Пекин продолжит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Сеулом в достижении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установления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Бастующие врачи-стажёры согласились участвовать в лечении COVID-19

В условиях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ой забастовки интернов и ординаторов Ассоциация врачей-стажёров согласилась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связанных с COVID-19.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РК Чон Сэ Гюна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врачей-стажёров. Медицин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также согласилось начать обсуждение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порных вопросов. Между тем,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анцеляри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достижение соглашения не означают, что врачи откажутся от забастовки или полностью вернуться к работе. Из-за серьёзности ситуации с вирусом COVID-19 врачи-стажёры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шли к компромиссу,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врачи вернутся к работе в ограниченном объёме, продолжая переговоры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Врачи-стажёры, работающие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многопрофильных больницах, а также интерны и ординаторы, объявили 21 августа забастовку в знак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плана рефор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Бастующие выступают против планируемого повышения квоты на приём в медицински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Они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увелич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врачей приведёт к усилению конкуренции и ухудшит качество лечения.

Между КНДР и КНР через реку Туманган построен новый мост

В КНДР заверш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моста через реку Туманган, который соединяе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город Намян провинции Хамгён-Пукто и китайский Тумэнь в провинции Цзилинь. На мосту общей протяжённостью 800 метров установлены поручни, а на дороге нанесена четырёхполосная разметка. В начале моста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видно новое строение, в котором, судя по всему, расположена таможн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на китайской стороне проходи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налогичного здания. КНР ведёт активную подготовку к открытию моста, готовясь к завершению создания торговой зоны в Тумэне в этом году. Новый мост, как ожидается, заменит старый, шириной шесть метров, построенный ещё во время протектората Японии над Кореей. Между тем, 17 августа в китайском Яньбянь-Корейском автономном округе, граничащем с КНДР, начал работу таможенный пункт.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н будет играть активную роль в торговле двух стран после снятия санкций СБ ООН.

Гражданин США подал иск в отноше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Гражданин США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Кеннет Пэ (корейское имя Пэ Чжун Хо), который в 2012-2014 гг. находился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тюрьме, подал иск на сумму 250 млн долларов в отноше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Как сообщила американская радиостанция «Свободная Азия», иск был подан 17 августа в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жной суд Вашингтона. Кеннет Пэ был арестован 3 ноября 2012 года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Расоне. 3 апрел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он был приговорён к 15 годам исправительных работ «за попытку свержения существующего в КНДР строя». Сообщалось, что в период с 2006 по 2012 год он, якобы, подстрекал в различных районах Китая находившихся там «граждан КНДР и иностранцев к враждебным действиям против КНДР». В ноябре 2014 года он был освобождён в результате активных контакт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ША и КНДР. Причину подачи иска Кеннет Пэ объясняет тем, что он подвергался пыткам и получил травму, по поводу которой до сих пор получает медицин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а его семье причинён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ущерб. Иск направлен по почте в МИД КНДР.

(RKI)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Маньчжурская наступательная операция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32)

Самой главной операцие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была Маньчжурская наступательная операция. В ней участвовали силы трех фронтов –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1-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и 2-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ла им японская Квантунская армия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генерала Ямады.

Забайкальский фронт вместе с монгольскими войсками (Монголия была единственной страной из советских союзников, которая объявила войну Япони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 СССР)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маршала Х. Чойбалсана наносила удар с западной стороны. В состав фронта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маршала Р. Я. Малиновского входили: 17-я, 39-я, 53-я армии, 6-я танковая армия, 12-я воздушная армия, Забайкальская армия ПВО и группа советско-монгольских войск.

1-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в составе 35-й, 1-й, 5-й, 25-й армии, 9-й воздушной армии, Приморской армии ПВО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маршала К. А. Мерецкова, наносил удары по японцам с востока (со стороны Владивостока и советского Приморья).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Амурской военной флотилией войска форсировали реки Амур и Уссури, прорвали японскую оборону, одолели хребет Малый Хинган и овладели Харбином.

25-я армия из состава 1-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ронта осуществляла операцию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севера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генерал-полковника И. Чистякова (сохранились его воспоминания об освобождении Кореи). Совместно с Тихоокеанским флотом были осуществлены десанты в корейские порты Юки (Унги), Расин (Наджин), Сэйсин (Чхонджин) и Гэндзан (Вонсан), а затем была занята и вся северная часть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до 38-й параллели (по согласованию с американцами). Операция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Кореи позволила отрезать японские войска от японской метрополии.

16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командующий Квантунской армии генерал Ямада Отодзо приказал своей армии сдать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приказа от императора Хирохито, который объявил о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ии 14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Некоторые японские дивизии отказались сдать, и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продолжались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их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С 19 августа японские войска, до которых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был доведен указ императора Японии о капитуляции, почти повсеместно стали сдаваться в плен.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Дин Юлия Ивановна, к.и.н.

"Женщина, которая убежала" – когда кино становится своим же режиссером

– Ничего не понятно, – парень на финальных титрах жмет плечами.

– Странное кино. Вы поняли? – делят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обирающиеся к выходу женщины.

Им, а точнее всем нам, хочется сказать – если вы ничего не поняли, вы все правильно поняли. Потому что фильм 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Хон Сан Су "Женщина, которая убежала" (16+), показанный на кинофестивале "Край света", – это не про понимание, а про нечто на поверхности, но незаметное, пойманное, но ускользающее, ясное, но неразгаданное. Понимание – однократно, завершённо, в этом его минус для исследователя.

Сюжет картины несложен: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Ким Мин Хи) навещает трех подруг, с которыми не виделась давно, и разговаривает с ними о переменах в жизни. Интересен не столько сюжет, сколько стратегия, выбранная Хон Сан Су. Она удивительна и проста, как сама жизнь. Режиссер не берет на себя функции штурмана, а доверяется потоку, снимая каждую новую сцену как естественное продолжение предыдущей, не загадывая наперед, не структурируя жестко, не строя свой фильм по привычным сценарным законам. У "строить" есть жаргонное значение "командовать", и Хон Сан Су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такой авторитарной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воему фильму роли. Он уверен, история вырастет сама, нужно только дать ей немного времени и пространства, нужно идти за ней, а не везти ее за собой, как санки, из которых вырос.

"Мой метод – отказаться от любых обобщений, отказаться от любых ожиданий, открыться миру и верить: то, что случится, – и есть то, что мне нужно. И что-то всегда случается. Вот я оказался в ее квартире (в первой главе фильма съемки ведутся в квартире, принадлежащей актрисе Со Ён Хва, – прим. ред.), увидел кухню, увидел цыплят во дворе. Я еще не понимал, что это значит, но все это мне нравилось. Я решил, что в первом кадре будет цыпленок, и дальше это привело к чему-то еще", – рассказал однажды Хон Сан Су,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бразильского журналиста.

Такая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ая мудрость отражает знакомый, пожалуй, каждому, фокус: мы ждем, что в нашей жизни вот-вот что-то начнется, случится, изменится, но время проходит и так и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мимо сиротой, бездомным псом, тенью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не придет озарение – ожиданиями мы замещаем саму жизнь. "Женщина, которая убежала" – это попытка подружиться со временем, не гнать его по монтажной линейке и не ставить на паузу, а позволить ему течь естественно. Открыть окно и дышать. Есть что-то вкусное. Отстаивать право кормить чужих котов во дворе. Говорить в интуитивной манере: куда выведет разговор, туда и выведет. Это напоминает диалоги абсурдистов, где коммуникация вроде есть, но сломана где-то в основании, или беседы в каком-нибудь артхаусном кино. При этом у Хон Сан Су – никакой алогичности. Героини говорят о новых квартирах, отношениях с мужчинами, еде, соседях, творчестве... Такие диалоги напоминают скольжение, когда катаешься на коньках по замерзшей реке. У каждой темы подо льдом есть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развития, но разговор ведется имен-

но на поверхности.

Этот фильм – о многом и в то же время ни о чем конкретном. Даже его название не отсылает нас ни к одной из героинь. Какая из них имеется в виду, думаешь сначала. Та, про которую сказали, что она ушла из дома? Но ее присутствие в фильме ограничилось одной лишь этой фразой, значит, другая? Кто из них? Они не убегают, в основном сидят и разговаривают. Но постепенно внутренняя кнопка с надписью "метафоричность сознания" сама собой делает "вкл.", и становится как-то смутно,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туманно, но все-таки ясно, что убежать можно и неподвижно. Наверное, предполагает Хон Сан Су – а он, как и зрители, не знает на этот вопрос точного ответа, – каждая из героинь от чего-то убежала или пытается убежать: от одиночества, от не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от прошлого... Может, все они желают покоя, но вот незадача – покой имеет свойство перетекать в скуку. А знают ли они вообще, чего хотят? В пространстве этого фильма с его почт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 отмененной конкретикой однозначный и полный ответ на этот вопрос скорее всего невозможен.

По словам режиссера, бытие всегда превосходит любые обобщения, любые заранее придуманные определения, поэтому он просто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них и смотрит, что будет. Как ребенок, впервые смешивающий песок, или насыпающий песок в суп, или бегущий за бабочкой. И за всем этим следит внимательная камера. Никаких суетливых движений, перебивок, склеек. Не пропустить момент – какой? А вдруг какой-нибудь будет, – помогают статичные общие и крупные планы. Иногда используется зум. Самый удачный момент его применения – с дворовым котиком. После фиксации спора с новым соседом о том, кто важнее, люди или бездомные коты, камера уходит на объект пререканий, который очень кстати решает мило почесаться и безапелляционно зевнуть.

Но, с трудом отвлекаясь от котика и возвращаясь к конкретности формулировок, будь то одна фраза из диалога или киновысказывание целиком, приведем еще одну цитату из интервью.

"Даже самые прекрасные вещи, как дружба, придется подстраивать под определения, если вы занимаетесь обобщениями. Но как составные части могут быть очищены от значения? В процессе работы эти составные части собираются вместе и превращаются в конкретную вещь. Эта конкретная вещь может значить разное для разных людей. Вот этого, наверное, мне бы и хотелось", – говорит Хон Сан Су.

"Женщина, которая убежала" – это 24-я картина 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Он говорит – когда я делаю фильм, то хочу быть счастливым. Интересно, что актрису Ким Мин Хи он снимает уже в шестом фильме подряд и каждый раз в главной роли.

Мировая премьера состоялась на берлин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Берлинале-2020", где фильм получил приз за лучшую режиссуру. В российский прокат "Женщина..." уйдет в ноябре. На "Крае света" повтор показа состоится 28 августа, начало в 22 часа в "Октябре".

Наталья Голубкова
(ИА Сахком)

Сахалин готов к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молодежному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слёту «ОстроVa 2020»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на нескольких площадках региона с 30 августа по 4 сентября. Участие в слёте примут 500 гостей из 75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и 500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вопросы обсуд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аша задача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комфорт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слёта.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касается вопросов медицины.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льзя допус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усмотреть соблюдение всех санитарных правил. Масштабное событие должно пройти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 словам руководи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минздрава Владимира Кузнецова, на каждом мероприятии в рамках слёта будут дежурить медики. Кроме того, все приезжие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обязаны предоставить справки об отрицательном тесте на ковид.

О готовности к «Островам» доложили и главы других ведомств, задействованных в подготовке и проведении слёта.

Так, минтранс обеспечит доставку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й на автобусах. Все водители прошли медицинский осмотр.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ответственное за питание, заключило договоры с подрядчика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и спорта подготовили точки размещения участников и площадки, на которых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Обеспечивать правопорядок в усиленном режиме в дни проведения слёта готовы сотрудники полиции и Росгвардии.

Напомним, главным событием слёта станет одноименный форум. Его программа пройдет по шести направлениям: «Острова Будущего», «Острова Победы», «Острова Мира», «Острова Впечатлений», «Острова Перемен», «Острова Медиа».

Открыти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лёта состоится утром 31 августа в бизнес-центре «Столица». Вечером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й ждет большой концерт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Дом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по сво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 том числе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Там будет разбит лагерь поисковиков и состоится перва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подготовленн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Штурм полицейского поста Хандаса»,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11-12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ребята поучаствуют в экологической акции, квестах и «Гонке героев».

В рамках культурной программы участники посетят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с вечерним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побережье Охотского моря, питомник ездовых собак и оленей. Кроме того, для молодежи организуют экскурсии по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3 сентября молодежь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священных Дню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этот же день во Дворце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состоится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лёт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ают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Волонтеры Победы». Сайт слёта: www.ostrova2020.ru.

В сахалинских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увеличили время общения врача и пациента

Технологии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зволили улучшить работу амбулаторий и поликлиник в Анивском, Холмском и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ах.

Пациенты Троицкой врачебной амбулатории теперь в среднем на 30 процентов быстрее проходят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медосмотры. При этом время общени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 доктором длится примерно на 70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Та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благодаря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ю нагрузки между врачом и медсестрой, переходу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документацию, оптимизацию «логистики пациентов».

—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от общего времени приема пациента раньше уходила на заполнение анкеты. Сейчас мы организовали анкетирование до визита к терапевту.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ациенту не приходится несколько раз приходить в поликлинику, а у терапевта поя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имать больше людей,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Анив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Иван Хавренко.

В поликлинике Тымовской ЦРБ ввели новую модель по вакцинации взрослых. Здесь сформировали единую базу пациентов у участковых врачей и реорганизовали рабочее пространство прививочного кабинета.

— Появилось просторное помещение с зоной ожидания. Все предметы, необходимые медсестре, теперь находятся на виду. Кабинет оснастили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м рабочим местом. Все это позволило нашим пациентам сократить потери времени на ожидание в очереди с 26 до 6 минут, — рассказал заведующий поликлиникой Денис Коротяев.

«Бережливые» технологии внедрили также в работу регистратуры амбулатории села Яблочного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Здесь организовали систему навигации и раз-

делили потоки пациентов по цели посещения, а также разработали порядок движения амбулаторных карт и внедрили запись на прием по телефону. Такие меры позволили в два раза сократить время, которое пациенты проводят в ожидании в регистратуру.

— «Бережлив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 это самый короткий путь к инновациям с минимальными вложениями. Мы в этом убедились на примере реализованных проектов. Они заставляют задуматься об оптимизации и упрощении самых разных процессов в отраслях экономики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по эффектив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ом Олег Попов.

Отметим, что благодаря программе «Эффективный регион» удалось улучшить работу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министерст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а также предприятий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област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Перечень лекарств по федеральной льготе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тся в 2021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6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препараты по рецепту, медицинские изделия и лечебное питание для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более чем на 100 наименований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ширить перечень жизненно необходимых лекарств. В реестр войдут инновационные, эффективные препараты, а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медикаментов превысит 500 позиций.

В этом году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был изменен порядок выписки и назначения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Теперь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рецепт на курсовое лечение в течение трех месяцев, а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 до полугода.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пациентам реже приходится обращаться в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за выпиской медикаментов. А срок действия рецепта продлен до 90 дней.

Иногда пациенты отказываются от получения лекарств и предпочитают денежную компенсацию.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комендует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возобновить свое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набора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

— Особенно это важно для пациентов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Получение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необходимой лекарственной терапии влияет на качество и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пациентов. Стоимость их лечения может многократно превышать сумму ежемесячной выплаты, — подчеркнула референт отдела лекарстве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минздрава Ольга Воронова.

Правом на получение бесплатных лекарств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Лариса Иванова пользуется уже пятый год — с тех пор, как у нее диагностировали сахарный диабет.

— Я лечусь во второй поликлинике, а лекарства получаю в аптеке №65. Очень удобно. Врач оформляет электронный рецепт, а я прихожу и получаю необходимые препараты в одном месте. Если бы я покупала все за свой счет, лечение вышло бы мне в копеечку. Плюс не нужно бегать по аптекам города, искать медикаменты, — поделилась Лариса Иванова.

— Граждан за льготными препаратами обращается очень много. Чаще всего это пациенты с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и патологиями дыха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В среднем люди получают от 4 до 18 препаратов. При временном отсутствии лекарств рецепт ставится на отсрочен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Мы записываем контакты пациентов и общаемся сразу, как препараты поступают, — фармацевт аптеки №65 Евгения Силупс.

Чтобы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ить положенные по федеральной льготе лекарства, необходимо выбрать набор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 в натуральном выражении (не деньгами). Сделать это можно до 30 сентяб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отделении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Также можно подать электронное заявление через личный кабинет на сайте ПФР, либо на портале gosuslugi.ru. В случае, если человек ранее уже выбрал льготу в натуральном выражении 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хотел бы сохранить право на нее, заявление оформлять не нужно.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ют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грамм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переобучения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ить навыки в рамках 14 компетенций смогут выпускник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граждане, состоящие на учете в центрах занятости и те, кто оказался под риском увольнения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Программа реализуется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в рамках нов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оюза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оказать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в сфере занятости, а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ить россиянам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обре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навыки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на рынке тру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еречень включены 14 профессий, по которым есть вакансии д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компетенции,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Кондитерское дело», «Облицовка плиткой», «Обработка листового металла», «Парикмахерское искусство», «Плотницкое дело», «Поварское дело», «Сваро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етевое и системное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е (возможно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Столярное дело», «Технологии моды», «Управление бульдозером», «Флористика», «Хлебопечение», «Электромонтаж».

— Мы начали прием заявок 15 августа. Уже есть более

трех десятков желающих обучиться представленным профессиям. Точная квота на количество соискателей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агентством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бучение начнется в сентябре, и мы ориентируемся, что пройти его смогут около полутора тысяч человек. Курс по каждой из компетенций в среднем будет расписан на 144 часа,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рия Козлова.

Обучение проведут на площадках,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тандартам Worldskills.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трехмесячные курсы организуют в Сахалинском техникуме сервиса, Сахалинском техникум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м промышлен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техникуме, а также в политехнических центрах №5 и №3.

По окончании обучения выпускник получит два документа об образовани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сертификат)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о переподготовке, а также Skills-паспорт Worldskills.

Оставить заявку можн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а сайте: <https://express.worldskills.ru/>, либо обратившись в агент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Sakhalin.archk@gmail.com.

Система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позволяет существенно снизить преступност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 эт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рассказали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 развитию аппаратно-программного комплекса (АПК)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Сопредседатель заседания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С помощью системы биометрического поиска сегодня расследуется большая часть преступлений. Так, с начала года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позволили выявить 20 находящихся в розыске людей и своевременно провести более 100 оперативно-розыск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отношении лиц, подозреваемых в противопра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бравшимся сообщили, что благодаря АПК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люди, находящиеся в розыске, не могут находить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анонимно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х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и сразу направляют в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островах — одна из ключевых задач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Её необходимо решать с применением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Благодаря такому подходу, теперь для людей, которые совершили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ходятся в розыске, нет никакого смысла посещать нашу область — их сразу же распознает цифровая система идентификации. Все въезжающие и уезжающие граждане контролируются уполномоченными органами, что в разы повышает безопасность региона, — подчеркнул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Устройства фото- и видеофиксации установлены в местах с наибольшей проходимость — на аэровокзалах, морских портах, МФЦ, а также в торгово-развлекате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Сити Молл».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до конца 2020 года оснастить такой техникой торгово-развлекательный центр «МегаБерезка».

Кроме того, если раньше систему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внедряли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о теперь её развиваю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всег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тся к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Великое кино великой страны»

Акция пройдет 2 сентября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й Года памяти и славы. Она приурочена ко Дню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Зрителя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кажут известный не только в нашей стране, но и за ее пределам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фильм Сергея Бондарчука «Судьба человека», а также документальную ленту Сергея Майорова «Простые главные слова», в которой известные актеры читают стихи поэтов, не вернувшихся с войны.

— Показ этих фильмов в Год памяти и славы поможет популяризировать наследие великого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станет мощным импульсом по сохран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 Со дня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рошло уже 75 лет, но память о подвиге народа не меркнет с годами. Она является для нас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великого героизма всех тех, кто завоевал для нас мир и свободу.

Оба фильма сняты участниками и свидетелями событий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противовес героическим батальным картинам они рассказывают о трагической цене, которую заплатил советский народ за Победу в 1945 году.

Фильмы единым блоком покажут на 14 площадках региона. Основным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акции станет ККЗ «Комсомолец»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казы пройдут также в Аниве, Долинске, Томари, Углегорске, Холмске, Тымовском, Поронайске, Курильске и Южно-Курильске.

По рекомендации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для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рассадка зрителей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 соблюдением дистанции не менее 1,5 метров.

Начало показов в 18:00 часов.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아버지 관엔 물만 가득했다" 여든 아들의 사할린 비극 광복 75주년 한수산의 기록-일제 강제동원, 빼앗긴 가족들

(전호의 계속)

마흔이 된 아들의 나이조차 마흔두 살로 기억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편지가 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시작됐다. 미수교국 소련에서 일본으로 편지를 보내면 그것이 다시 대구의 중소이산가족회를 통해 아들에게 배달됐다. 몇 달이 걸릴 때도 있었다.

'나는 혼자 독신생활로서 섭섭하나,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런 근심걱정은 없으므로 다행인 줄 짐작해라.' '나는 서산에 지는 해와 같다. 머지 않아 80을 내다보니 원통함을 누구에게 말할꼬. 참으로 기막힐 일이 아닐 수 없구나.' 편지를 읽자면 반가움보다 먼저 이산의 슬픔으로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언젠가는 모시고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의 나날이 흘러갔다. 어느새 만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떠났고, 첫 손자의 출생을 알려왔다. 둘째 아들도 결혼해 연년생으로 두 손자를 안겨주었다. 해가 지나고, 만아들이 뉴욕의 대학에서 교수가 됐다는 기쁨이 날아들었다.

그러나 기쁨의 옆방에는 슬픔이 산다. 1987년 사할린으로부터 비보가 날아들었다. 친구 이용하 씨가 보낸 편지였다.

'희권. 그동안 잘 있습나. 자네한테 섭섭한 뭇 말을 전하고자 한다. 아버님이 세상을 뜨고... 사망 날은 양력 5월 24일 아침 6시경, 장사는 29일날 모시었다.' 사할린에서 보낸 편지가 일본을 거쳐 전해지기까지, 두 달이 지나서야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알았다. 형제들을 대신해 일제의 징용에 끌려갔다. 해방을 맞았지만 미수교국으로 길이 막힌 그에게 조국은 없었다. 겨울이면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얼어붙은 땅 사할린에서 무국적자로 살았다. 아내와 자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일념에서 독신으로 살았던 한 사나이의 삶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잊지 않고 간직했던 고향 주소도, 베갯머리를 눈물로 적시던 고향 길도 움켜쥔 손아귀에서 모래처럼 흘러 내리며 그는 흙으로 돌아갔다. 아들과 편지 왕래를 한 지 겨우 5년 만의 이별이었다.

시간이 흘러 1990년 소련과의 국교가 정상화된다. 그리고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를 진행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다.

"2007년 11월, 국가로부터 아버지 '이석동을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함'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어요. 강서구청에 가 보상 신청을 하라고 해서 찾아가니, 1945년 8월 이전 사망자에 한해서만 보상을 한다네요. 도대체 뭐 이런 나라가 있나,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요. 그 후에도 기한을 연장한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데, 그것조차 통지를 안 해주니 모르고 지나쳤지요. 국가의 보상 같은 건 잊고 살았습니다."

2011년 여름 정부는 사할린 한인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실태조사를 통해 아버지가 사할린 홈스크 지역 피치레치에 묘지에 안장돼 있음이 확인된다. 묘지번호 027-02-070, 고인 이름 리석동, 성별 미상.

2018년 가을, 이희권 씨는 아들과 함께 사할린으로 떠났다. 처음 밟는 땅, 사할린은 이미 가을이 깊어 하늘을 뒤덮듯 솟아오른 자작나무가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차를 달려 세 시간, 묘지에 도착했다. 허리가 넘게 자란 잡초들을 제거하고, 술을 올리며 두 번 절하고 냈을 때였다. 언제 그렇게 많은 눈물이 고여 있었던가.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눈물이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왔다. 안내해 주던 한인회의 교민마저 함께 흐느껴 울어야 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왜 부르지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가. 손등으로 눈 밑을 닦아 내는 이희권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어머니와 헤어진 게 열한 살, 어머니한테는 얻어터지고 야단맞은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더 엄하게 키우려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는 왜 그다지도 그림고,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해 10월 열네 분의 유해를 모셔오는 제7차 사할린 유해봉환사업의 일환으로 이희권 씨는 현지로 출발했다. 다음 날 무덤을 헤치면서였다. 사할린은 춥기 때문에 깊게 묻는다고 했지만, 아무리 파도 유해가 보이지 않자 아버지를 못 찾은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얼마를 더 파내려 가셔야 질척거리는 물속으로 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젖어서 흐물흐물한 옷가지에 싸인 유해는 수습할 때도 별로 없이 싸아 있었지만 관 속의 모습은 평상시 옷차림 그대로였다. 구두도 신은 채였다. 지갑과 면도기 하나, 또 한 켤레의 구두가 유품으로 묻혀 있었다. 태극기에 싸인 아버지의 귀환은 조국의 정중한 의전 속에 국립 '망향의 동산'으로 이어졌다. 뼈가 돼 돌아올 때까지 고향을 떠나 80여 년. 길고 길었던 세월을 건너 서울 가양동 아들의 아파트로 들어선 아버지는 증손자까지, 온 가족과 함께 첫 밤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 선산에 묻혔다. 아들은 묘비에,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는 어머니 유인벽진이씨(孺人碧珍李氏) 옆에 전주이공석동(全州李公錫東)이라고 두 분의 이름을 새겼다.

"섭섭함이야 많지만 국가나 정부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유해를 모셔올 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지금요?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결코 그리고 끝내,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고 산 아버지와 아들의 삶. 역사에 밝히고 시대에 잊혀도 마침내 일어서는 이 민족의 삶은 고결하다. 아들에게서 손자로 흘러가는 삶의 물결이 자신의 뒤를 장엄하게 이어가고 있음을 고인은 아시리라. 고이 잠드소서. 이제 평안하소서.

(끝)

[출처: 중앙일보]

(출처 중앙일보, 2020.08.14)

'K-종이접기' 문화 러시아 확산 위해 협력키로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은 8월 26일 서울 장충동 소재 종이문화재단 사무실에서 러시아한글학교협의회와 'K-종이접기' 문화 러시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종이문화재단)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이사장 노영혜)은 8월 26일 러시아한글학교협의회(회장 서지연)와 'K-종이접기' 문화 러시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러시아한글학교협의회 소속 한글학교 우수교사 대상 '대한민국 종이접기강사' 장학과정 운영 ▲러시아한글학교협의회 및 한글학교 학생을 위한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 청소년 급수' 교실 운영 ▲러시아에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종이접기·종이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대회 및 작품공모 사업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 러시아 지부 설립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노영혜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 이사장은 "2013년 모스크바대학에서 '대한민국 종이접기문화 세계화 한마당' 행사를 3일간 진행했을 때 'K종이접기' 문화에 대한 현지 참가자들의 학습열의를 보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러시아한글학교협의회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 'K종이접기' 문화를 러시아 전역으로 전파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장충동 소재 종이문화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러시아한글학교협의회 서지연 회장(바르네르한글학교장)을 비롯해 하중혁 사무국장(모스크바 한국문화 한글학교 교장), 박소영 전 회장(예카테린부르크 성결교회 한글학교장), 유옥경 전 회장(모스크바 토요한국학교장)이 함께 자리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SNS 공모전

- 주 최 :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 행사내용 : SNS에 한국문화, 역사, 한-러 관계 등을 소개한 우수 콘텐츠 공모대회
- 접수부문 : 이미지(카드형 스토리)/동영상
- 참여대상 : 러시아 국민(한인동포 포함)
- 공모주제
 - 1) 나만 아는 한국
예시) 명소, 맛집, 놀이, 문화 등 대상에 관계없이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본인만의 특별한 한국 이야기 콘텐츠
 - 2) 한-러 문화 비교
예시) 대중문화(가요, 영화, 드라마, 미용 등), 의식주, 관혼상제, 자녀교육 방식 등 대상에 관계없이 한국과 러시아의 특성을 비교하는 콘텐츠
 - 3) 한-러 협력
예시)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자료 또는 아이디어 콘텐츠

○ 시상내역

구분	시상	비고
1등	상장 및 500달러 상당 상품	이미지/영상 부문별 각1명
2등	상장 및 350달러 상당 상품	
3등	상장 및 200달러 상당 상품	
장려상	상장 및 50달러 상당 상품	이미지/영상 부문별 각2명

* 선정작은 11월 중 별도 통보 예정

○ 신청방법

1. 이미지나 동영상상 자신의 SNS에 게재(분량제한 없음)
2. 해시태그 추가 #대한민국_러시아_30주년 #Корея_Россия_30лет #Korea_Russia_30years
3. 신청서와 콘텐츠의 링크를 10월 30일 까지 사할린출장소(sakhalin@mofa.go.kr)로 제출

○ 참고사항

- '좋아요'나 조회수 많을 시 가산점 부여
- 1인당 출품 가능 수 제한 없음
- 콘텐츠 언어는 러시아어 또는 한국어(별도의 가산점 없음)
- 문의사항 : +7 (4242) 46-24-30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코르사코프 주민들, 국기의 날을 기념하여 유노나산 정복

매해 러시아의 날과 국기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수도센터가 유노나 산맥 등반을 조직하고 있다. 8월 22일에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애국 행사에 참가했다.

행사는 도심에서부터 이후 참가자들이 분산될 도시 외곽까지 소규모 자동차 경주로 시작했다. 불샤야 유노나산으로 주요 그룹 25명이 출발했고, 청년의회센터의 대표들은 말라야 유노나산으로 출발했다. 이는 두 개의 봉우리로 이뤄져 짧고 푸른 산맥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큰 산이다. 두 봉우리의 높이는 해발 300미터 이상이며 불샤야 유노나산에서는 말라야 유노나산까지 전망을 볼 수 있다.

이곳은 2013년 9월 14일에 개척자들의 사할린섬 발견 370주년을 기념했던 곳이며, 사할린에 러시아 국기 게양 160주년 기념으로 9미터의 정교회 십자가를 상징으로 세운 곳이다. 등정에 앞서 참가자들은 안전 기술에 대한 안내를 받고 등반 코스를 향해 모두 목표지로 떠났다. 이 등반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 참가했다.

평균 등반은 1시간으로 되어 있다. 정상에 선 애국 행사 참가자들의 눈앞에 청록빛 아니와만과 액화천연가스 공장, 시가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멋진 풍경들이 펼쳐졌다.

산 정상에는 러시아 국기와 코르사코프시의 깃발이 게양되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사진 촬영 후 등반하면서 충만했던 인상적인 점들 나누며 재등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코르사코프시 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Корсаковцы покорили горы Юноны в честь Дня флага

Ежегодно в честь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России и Дня флага центр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организует восхождение на горы комплекса Юноны. 22 августа участникам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акции стали более 30 человек.

Стартовала акция небольшим автопробегом от центра города до Пригородное, где затем участники разделились – основная группа в 25 человек отправилась на Большую Юнону, 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олодежного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центра – на Малую. Вообще, это один большой массив,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епродолжительный зеленый хребет и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названных вершин.

Высота обеих гор над уровнем моря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300 метров. Но именно с Большой Юноны можно наблюдать Малую, где, кстати, 14 сентября 2013 года в честь празднования 370-летия со дня открытия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а первопроходцами, а также в честь 160-летия поднятия русского флага на острове, установили памятный знак – девятиметровый православный крест.

Перед подъемом участники прошли инструктаж по технике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тем, проложив маршрут, все направились к цели. Многие участвовали в таком шествии в первый раз.

Средня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такой прогулки составляет примерно час. Невероятный вид открылся участникам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акции на вершине: бирюзовый залив Анива, завод СПГ, город.

На вершине были подняты флаг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осле общего фото все делили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 такой наполняющей во всех смыслах прогулке и планами о повторном подъем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орсаков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사할린주, 러시아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에서)

Женщина 68 лет, проживающая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знакомится с мужчиной 1944-1945 г.р. и старше, для выезда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Тел: 89242804045.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는 68세의 동포 여성이 영주 귀국을 위해 1944-1945년생, 또는 그 이전 출생의 남성과 만남을 원함.

전화 89242804045.

광고-광고

새 고려킨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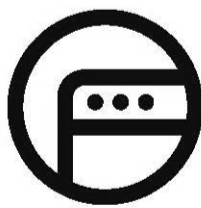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клама

<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i>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i>